



Analyst 유승우 · 02-3773-9180 · yswbest@sk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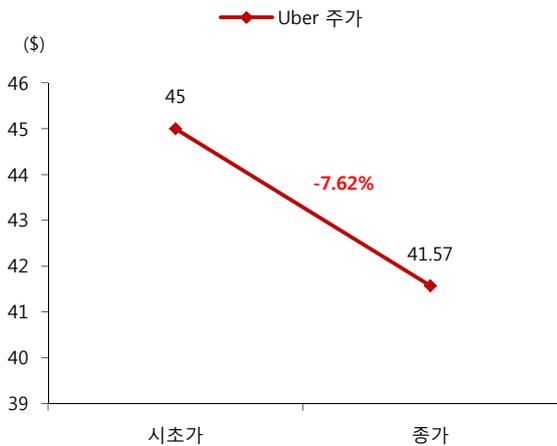
Issue Comment

- ✓ Uber가 상장 첫 날 7.62% 하락 마감함
- ✓ 승차공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버블이 있음을 보여줌
- ✓ 그러나 승차공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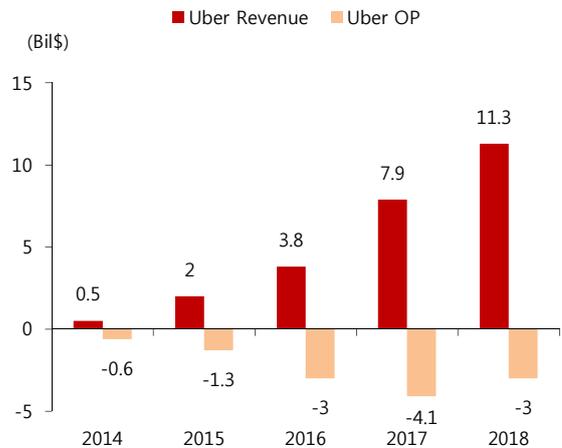
Uber가 상장에 실패했다고 승차공유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

지난 주 2019년 IPO 최대어로 손꼽히던 Uber가 상장했다. 지난 달 경쟁사인 Lyft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Uber도 공모가를 하향해 \$45/주에 상장시켰는데, 상장 첫 날 Uber는 7.62% 하락한 \$41.57/주에 마감했다. 이는 시총으로 환산하면 예상 시총이었던 \$1,200억(최고 예상치)을 크게 하회하는 \$697.1억 수준이다. 2018년 연간 매출액이 \$113억이었음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대략 PSR 6.17x 정도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마켓워치는 “지난 24년간 최악의 IPO 5위 안에 들어간다”고 혹평했다. 물론 Uber의 IPO는 예상했던 수준을 하회하며 실망감을 준 것은 맞다. 경쟁사인 Lyft가 상장 이후 연일 약세를 보이는 것도 소위 말하는 버블이 끼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판단한다. 앞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승차공유 기업들도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전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은 이해할 수 있다. 그러나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3월 18일 발간한 ‘SMART Mobility climax: 손정의 따라잡기’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, 승차공유 기업의 주가는 문제일지 몰라도, 승차공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. 모빌리티 4.0의 키워드인 ACES의 한 축인 승차공유는 앞선 산업혁명들처럼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변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. 과거 닷컴버블 때에도 버블이 문제였지, 닷컴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다.

Uber는 상장 첫 날 7.62% 하락함



Uber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



자료 : Yahoo Finance, SK증권

자료 : SEC, SK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